



북미주 이화동창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EWHA WUAANA

www.ewhaian.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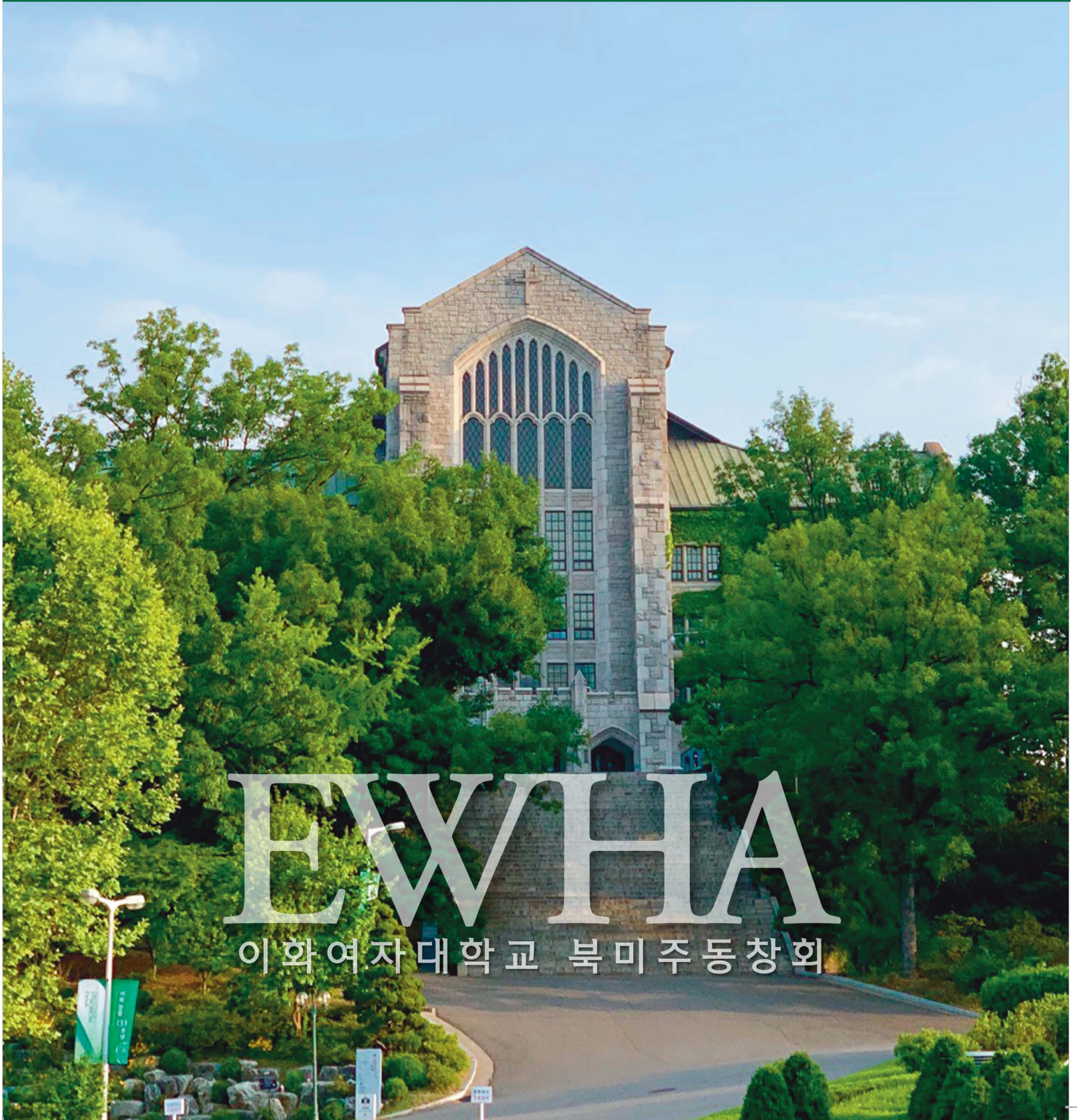
E-mail: EWUAANA@gmail.com

Phone: (847) 439-6592

발행인: 이풍자 편집인: 임성숙

동창은 이화가 배출한 보배, 우리의 생동력은 이화의 보람

2021년 7월



眞・善・美

이화가 지향해야 할
최상의 가치 이념들을
진(眞)・선(善)・미(美) 라는
간결한 표어로 정의한다.
풍부한 지혜와 지식,
아름다운 덕성과 정서를
조화롭게 지닌 인성교육은
이화가 추구하는
전인교육 이념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회가
최상의 가치로 삼아온
진진・선・미 선・미 는
하늘에 속한 것인 동시에
인간이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표이기도 하다.
이화의 교훈은
1930년 무렵 당시
문과 교수이던
김상용(金尙榕) 선생이
간결하고 명확한
진・선・미 를 제안하였고,
교수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제정되었다.



Table of Contents

• 인사말	4
• 의료원장 인사말	6
• 의료원 소식	7
• 의대 활동 소식	8
• 장학사업	10
• 동창탐방	12
• 옛 교정에서	16
• 미술 이야기	22
• 수필	24
• 총회사진 (2011~2019)	30
• 임원 명단	37
• 2022년 총회 및 여행	38
• 후원금	39





사랑하는 북미주동창회 동문 여러분께,

푸른 초목의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여 동문 여러분과 그 가정에 건강과 평화와 사랑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북미주동창회는 창립 목적인 동창들의 친목과 유대를 도모하는 가운데 이화학당을 세우신 Scranton 선생님의 숭고한 창립정신을 기억하며 진·선·미의 가치이념 속에서 우리를 키워준 모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마다 아름다운 동창회로 발전할 수 있는 일을 구상하며 실현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우리 모교 이화대학은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올해 135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식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여 전세계 이화인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제 17대 김은미 총장은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위상 공고화를 위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선도연구 분야 10개, 미래형 도전연구 분야 10개를 집중 육성하는 ‘프론티어 10-10사업’,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 혁신 플랫폼 구축의 일환인 ‘국내 최초 학부 인공지능대학 설립’, 신촌캠퍼스-목동병원-서울병원을 잇는 ‘이화 첨단 융복합 메디·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마곡밸리 글로벌 바이오헬스 및 제약기업-산학협력단-병원 협력 확대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새 슬로건 [‘그대가 바라는 미래, 이화’, ‘Ewha, The Future We Create’]도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도약 속에 모교의 무궁한 발전을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북미주동창회는 그동안 이화를 사랑하는 선후배들의 신실한 봉사와 헌신, 또 많은 동창들의 이사회비를 비롯한 다양한 재정적 후원으로 그 뿌리를 단단히 내리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창립 15주년을 맞은 [북미주 이화동창] 기념책자를 발간했고, 창립 20주년에는 한국에서의 뜻있는 연례총회를 계획하며 가슴 설레이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엄습한 코로나바이러스로 총회 행사를 연기해야만 했지만, 내년 4월에는 한국에서 멋진 프로그램과 명소 관광으로 알차게 짜여진 아름다운 잔치에 동문 여러분을 초대할 계획입니다. 동창회란 울타리 안에서 사랑과 우정과 즐거움을 만끽하는 황홀한 봄의 향연이 되리라 믿습니다.

새롭게 구상된 올해 동창회보 [북미주 이화동창]을 통해 그리운 친구들을 사진으로 반갑게 만나는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

이사장 **최 경 숙** (영문, 66)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 동문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안녕하십니까?

2020년은 우리 모두에게 힘든 한 해였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준 해이기도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어느 때보다 여러분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함께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 북미주동창회의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학기금을 비롯해 동창회 운영 기금 등 많은 관심과 후원금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상치 못한 재정적 어려움까지 겪어야 했던 시기에 북미주동창회 장학금은 수혜 학생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동창회는 예년과 같이 올해에도 북미주동창회 장학금을 비롯하여, 윤영희(의대, 70) 본교 의대생 장학금(2018년 시작), 북미주 가정에 입양된 한인 입양아 대학생에게 수여되는 최경숙(영문, 66) 장학금을 수여 합니다. 북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동창 자녀 학생들에게 널리 홍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팬데믹 상황이 좋아지고 있지만, 대규모 단체모임의 안정성을 고려해 다음 북미주동창회 연례 총회는 2022년 4월 13일부터 20일까지 한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분야의 특강을 준비하고 있으며, 북미주 이화 동창만을 위한 특별하고 멋진 여행 일정과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명주 준비위원장을 비롯해 모든 임원이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성대한 잔치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더 많이 웃고 더욱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

회장 **이풍자** (영문, 62)

“이화, 북미주 동창여러분의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북미주 동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경하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입니다.

이렇게 서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송구하고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로 서로 마주하지 못하는 기간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위안으로 삼는 것은,
코로나19 위기가 끝을 향해 가고있다는 믿음입니다.

모두의 가정이 평안하신지 여쭙습니다. 어려운 와중에도
고국과 이화의의료원에 따뜻한 사랑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우리 동창회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응원, 그리고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1887년 보구녀관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여성과 소아
에게 진료 받을 권리와 교육 받을 권리를 제공했습니다.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진취적인 태도, 소외받은 이들을
보살피는 연민과 자비,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함이
바로 이화의 기본 가치입니다. 이화의 역사가 고스란히 한
국 의료의 역사가 되었듯, 변화와 발전에 앞장서며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이화의의료원은 새로운 기준점이 될 것입
니다. 그 힘찬 걸음에, 북미주 동창여러분들이 늘 함께해
주시니 너무나도 든든합니다.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해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지정 제4기 상급종합병원
이 되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유일한 대학병원이자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중증 환자 중심
진료를 해온 이대목동병원의 가치가 다시금 인정받았습니
다.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게 믿음을 주신 여러분 덕분
입니다.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해 7월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637개 병상에서 700개 병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중 새로
만들어진 35개 병상 규모의 한 병동 전체를 ‘코로나 환자
전담 치료 병상’으로 운영했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
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2020년 7월 리모델링한 38병동.
35병상의 38병동전체를 ‘코로나 환자 전담 치료 병상’으로 운영



서울 최초로 코로나19 승차 검진을 운영한 이대서울병원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



▲ 1920년대 동대문부인병원 근무한 현덕신 선생님의 손자, 최영훈 전 조선대 미술대학장. (왼쪽에서 네 번째)

최근 두 돌을 맞은 이대서울병원은 747명상 규모로 서울 서남권에 새로운 의료모델을 제시하는 종합병원으로 우뚝 섰습니다. 전국 최대 코로나19 검진 대학병원이자 고위험 산모 특화병원, 서남권 뇌혈관 최우수병원, 최신·최고 시설의 조혈모세포이식센터 등 내실을 갖췄습니다. 전공의 부재 상황에서 이뤄낸 이대서울병원의 성과에 대해 모두가 감탄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북미주 동창여러분께, 최근 ‘이화의의료원 135주년 역사 편찬 위원회’가 출범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매주 저와 김영주 사회공헌부장, 임선영 이화의대 동창회 부회장, 이자형 이화여대 명예교수, 권복규 의대 교수 등이 함께 모여 흠어진 옛 자료를 모아서 우리 의료원 역사의 조각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년 보구녀관 설립 135주년이 우리 이화의의료원 역사 재정립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최근 그 성과로 귀중한 분을 만났습니다. 바로 1920년대 동대문부인병원(릴리안 해리스 기념병원)에서 근무하셨던 독립운동가 겸 여의사, 현덕신 선생님의 손자분입니다. 현덕신 선생님은 이화학당 출신으로 도쿄여자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해, 국내에서 7번째 여의사가 된 선구자입니다. 현 선생님은 동대문부인병원에서 조선 여성들과 아이들을 돌보는 산부인과 겸 소아과 의사로 근무하셨을 뿐 아니라 1920년 일본 도쿄 히비야공원에서 만세운동을 하고, 여성

계몽 운동에 앞장선 큰 어른으로서 지난 해 정부 건국포장도 받으셨습니다.

식민지 조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취약 계층인 조선 여성의 건강을 보살핀 여의사이자 독립운동가의 삶을 산 현덕신 선생님의 생애를 공부하며 저는 감동과 전율을 느꼈습니다. 우리 이화 선배들의 숭고한 삶을 잊지 않고 발굴해 후대에 알리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자 소명입니다. 상당수 자료가 소실되었지만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연구해, 헌신하신 수많은 선배들을 찾아내겠습니다. 우리 이화의 역사를 세울 수 있도록, 국내외 4천 500여 명 동창여러분들의 도움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북미주 동창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자부심이 되도록,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화의 출발점이자 대선배, 길잡이이신 존경하는 박에스더 선생의 글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나를 계속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명예를 위한 노고에 은총을 내리셨다.” (1902년 5월 16일, 한국여성연회의 제4차 연례보고서 중에서)

2021년 6월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유경하 올림

사랑하는 북미주 의과대학 동문님께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 의과대학 동창회
회장 장명주 (의대, 77)



2019년이 마지막 동창의 만남이다보니 오늘 펜을 드는 순간 동문님들과의 만남이 무척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간 건강하시고 평안하셨는지요?

우리의 일년에 한 번 만남이 생각보다도 훨씬 길고 또 깊음을 새로이 다시 한 번 깨달았으며, 무엇보다도 동창회의 미션인 우리 선후배의 정의 나눔이 무척이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현재 목동병원은 4개월에 걸친 remodeling을 마친 후 7월 1일에 기념식을 가졌으며 최상급 종합병원의 지위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대서울병원도 상급종합병원의 면모를 갖추는 준비 중입니다. 2021년에 첫 인턴 수련 병원이 되었고, 현재 인턴 3명이 근무하며 2022년에는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 병원 지정 신청 (인턴 41명 예정) 4년 후 2025년에 전공의 4년차까지 다 갖추어 예정입니다.

이대서울병원 건립이 2015년 착공 후 4년간의 대역사 끝에 지하 6층, 지상10층, 1014병상 규모로 2019년 2월7일에 개원을 시작한 후 많은 동문들은 병원 경영에 대해 궁금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임상진료와, 진료 특성화 센터,

윌니스 건강증진센터, 윌에이징센터, 또 국제 진료센터로 분리되어 있으며 2020년 3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평균 하루 외래환자 1730명, 입원환자 449명, 평상 병상가동율이 68.3%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대서울병원과 동시에 건립된 보구여관은 133주년 기념 행사를 마쳤으며, 2022년에는 135주년을 맞게 됩니다. 지금 보구여관의 역사 재조명 사업을 기획·추진 중인데, 그 일의 하나로 ‘역사서’ 편찬을 준비 중이며 이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화여대 의대 50년도 — 70년도 사이에 졸업하신 동문들의 [의과대학 졸업앨범 기증]과 [동대문병원 수련/진료/봉사활동 및 행사 때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뜻있는 편집을 위해 많은 동문들의 협조를 간곡히 바랍니다.

2020년부터는 기부금을 병원 건축과 동시에 의료진의 성장을 위해 비전임교수들의 해외연수를 위해 쓰고자 한다는 유경하 의료원장님의 제안이 있었으며, 북미주 동문들의 모금액이 해외연수를 위한 ‘seed money’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감사의 표시를 하셨습니다.



2019년 Portland, Oregon 총회 때 문 병인 전 의료원장님과

그동안 우리 북미주 의과대학 동창회의 핵심 사업의 하나로 2014년부터 의료원(이대서울병원 건립) 후원을 위해 모금을 시작해 왔습니다. 많은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로 총 2백만달러 이상의 후원금을 의료원에 지원을 했고, 2020년에는 \$298,400(이대서울병원 \$268,400, 의대 \$30,000) 2021년 7월 말 현재 \$87,000 (이대서울병원 \$35,000, 의대 \$52,000)을 보냈습니다.

지난 해에 70년도 졸업 동문들이 졸업 50주년 기념으로 기금을 모아 병원과 의과대학으로 \$140,000 (2020년 6월말 기준) 송금을 했습니다. 이후 신영숙('70) 동문이 \$20,000을 후원해 주셨고, 작년에 70년도 졸업생들의 시작으로 올해는 이순희('71) 동문을 중심으로 71년도에 졸업한 동문들이 총 \$42,000을 의과대학 기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도 의미가 깊은 사업이며 앞으로도 졸업 50주년 기념으로 매해 동문들이 모교 사랑의 후원에 관심을 갖고 '학교 사랑사업'이 지속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작년에 은퇴하신 박정옥('71) 동문이 8천불을 서울병원 건립에 기부하셨고, (고)강일희('66) 동문의 부군께서 고인의 뜻에 따라 작년에 이대서울병원에 만불의 후원금을 보내 주신 것에 이어서, 올 해에는 고인의 학창시절 4년간 의과대학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과대학 장학금으로 만불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2년 전부터 윤영희('70) 동문도 매해 의과대학에 만불의 장학금을 후원하기로 약정하시고, 2명의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이대서울병원 건립에 기여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적인 장학사업, 의료원, 의과대학의 발전은 물론 더 나아가 본교의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나가도록 당부하며 내가 졸업한 나의 대학, 나의 병원이 세계의 첨단을 딛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길 바라며 이에 우리 북미주 의과대학 동창회가 큰 힘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곧 우리 모두의 만남이 기대되며, 2022년 4월 중순에 한국에서 열릴 예정인 북미주동창회와 동시 북미주의대동창회 모임을 할 예정이오니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와 우리가 하나의 힘이 되어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로 탄생한 이대서울병원을 자랑스런 마음으로 함께 방문하는 뜻 깊은 기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의과대학 후원금 (졸업 50주년)			
김대봉('71) 1,000	이순희('71) 20,000	채은화('71) 5,000	
김정자('71) 2,000	이안숙('71) 1,000	최옥경('71) 1,000	
박정옥('71) 2,000	이정혜('71) 3,000	최인규('71) 4,000	
송덕자('71) 1,000	장신옥('71) 1,000	최정교('71) 1,000	
* (고) 강일희('66) 10,000			합 계 42,000

의료원 후원금*			
박정옥('71) 8,000	오구미('78) 5,000	정청자('69) 2,000	
신영숙('70) 20,000	이희복('74) 10,000	황정미('72) 40,000	
안정옥('73) 400	장명주('77) 10,000	합 계 95,400	

* 위의 금액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말까지 모금된 금액입니다.



서울병원 기금 모금에 공헌하신 정성애 교수, 권정희 팀장님과



전 목동병원장, 현 서울병원 유경하 의료원장님과

장학사업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 장학금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는 창립 초기부터 계획하고 실시해 온 장학금을 2021~2022에도 계속 수여할 계획입니다. 일찍이 미국과 캐나다에 유학 온 이화 동창에게 수여로 시작한 장학사업은 북미주 거주 동창 자녀 대학(원)생으로 자격 범위를 넓혔고, 2년 전부터는 윤영희(의대, 70)동문이 매해 본교 의대 재학생 2명에게 만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경숙(영문, 66) 동문 가족이 북미주 가정에 입양된 한인 입양아를 위해 만불의 장학기금을 마련하여, 앞으로 더욱 증가된 장학 기금을 지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본 장학금은 북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이화 졸업 동문 유학생, 자녀, 한인 입양 대학(원)생들을 격려하고, 한인으로서의 자긍감을 가지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Community College부터 대학원까지 북미주 거주 이화인 가족과 한인 입양 대학(원)생에게 열린 이 장학사업이 앞으로 더욱 많은 장학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여러 동문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해에도 장학금을 지불할 계획으로 있어오니 주위에 알려 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hshorack@san.rr.com.에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류 제출 마감일은 10월 31일이고,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essay, 추천서, 성적증명서, 재학 증명서이며, www.ewhaian.org에서 download 받으시면 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 장학금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www.ewhaian.org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 장학금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EWUAANA) is in seeking talented students who may be in need of financial support for the academic year, 2021-2022.

Applications are invited from Ewha Womans University undergraduates, graduates or children of Ewha Alumnae in North America who expect to attend an accredited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in North America during the grant year, and / or recent Ewha graduates who are doing research or pursuing other scholarly or artistic projects in North America.

Additionally, a scholarship for Korean-born students who have been adopted by parents residing in North America will be available as long as the funding lasts. This scholarship was established in the memory of Dr. C.D. Kwon by his family.

Applicants must be able to submit evidence of: (1) good academic or artistic achievement and promise; (2) financial need; and (3) sound character and commitment to science and/or the arts, including liberal arts.

Applications must adhere closely to the following rules.

1. Applications must be typed, completed, and emailed to hshorack@san.rr.com by October 31, 2021. Incomplete applications will be disqualified.
2. Submit all required documents described on page 7 of the application.
3. If you require additional space to complete any section, please add space.
4. No applications will be returned to the applicant. EWUAANA reserves the right to publish or reprint any essays submitted as part of an application.
5. Letters of recommendation and artwork CD (if applicable) must be submitted to the address on page 7, and postmarked no later than October 31, 2021.

Applicants will be notified of the status of their application via email or phone call by November 30, 2021.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eligibility or the application process, please send an email to Heather Shorack at **hshorack@san.rr.com**



Dear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I would like to begin by thanking you and saying it is a great honor to receive the 2020-2021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EWUAANA) Scholarship. This year has truly been challenging due to an unanticipated global health crisis, but with the 2020-2021 EWUAANA Scholarship fund, I was able to continue moving forward to successfully complete my dissertation, expecting to graduate in Spring 2021 as I have planned.

I am a 4th year PhD student at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and conducting a dissertation study about cognition and diabetes self-management in older adults with type 2 diabetes. This scholarship has greatly encouraged me to achieve my academic and professional career goals. I wish, one day, I could support the future Ewha students or alumnae so that they can overcome their challenges and achieve academic goals like I experienced. I deeply appreciate, again, your generous support.

Min Jung Kim



Dear donors and members of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I am greatly honored to be the recipient of the 2020 Ewha Scholarship. I would like to thank all members of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for assisting my studies and academic endeavors. To me, this scholarship means much more than just financial assistance; this scholarship gives me pride, honor, and more attachment to my mother's school Ewha. With such a generous scholarship, I will be more adventurous in my studies.

Engineers are makers, which means it requires a lot of initial investments. Remembering this scholarship and Mary Scranton's intention to educate other women, one day, I would like to become someone impactful who can assist other financially struggling students.

Thank you again for the scholarship.

Lucy Cho



I'm incredibly honored to have received the EWUANA scholarship this year. Although 2020 has been a historic year full of uncertainty, doubts, and fears, the unconditional support from this amazing community was a tremendous fuel towards both my academic and personal growth.

As an undergrad, getting my first research paper published recently in the Journal of Immunology was a huge milestone that reaffirmed my commitment in science and clinical medicine—specifically, mitigating the current drawbacks in our most advanced clinical insulin therapy for both Type 1 and Type 2 Diabetes. As much as I love engaging in pathology research, it has truly been an eye-opening experience to study various aspects of public health at school and in our current environment as a public health major.

My university, Johns Hopkins, stepped up as a global leader in COVID-19, and likewise, I hope to use my educational resources to progressively reverse the current misunderstandings and resistance of interventions like vaccines and further amplify the crucial life-saving benefits of this field to ensure global health equity and equality.

Angela Yang



Dear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I am a third-year law student at UNH Franklin Pierce School of Law, graduating the law school in May, 2021. Although I was awarded full-tuition scholarship from the school, other expenses including rent, books, and health insurance always burdened my family in Korea, and I always felt sorry for them. With my student visa, and as my school has almost no jobs availab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I could not do any part-time jobs to lessen the financial burden.

When I found out that I need thousands of dollars for a bar-preparation course and bar exam fees, I was concerned with how I can afford all that money. But, I came this far so I could not give up taking the bar exam only because of financial difficulty. Therefore, I truly appreciate your support when additional financial support was most needed for my education and pursuing my future career. Thanks to EWUAANA scholarship, I will be able to finish my law school and take the bar exam this summer.

I am very proud to be one of Ewha alumnae, and again,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support.

Ji Hye Hwang

잔잔한 미소의 외유내강 여인 김영미 동문



김영미 (교심, 72)

삶 - 누군가는 사람의 준말이 삶이라 했다. 우리의 삶은 사람과의 만남이다. 우리가 일생 동안 좋은 사람을 만나고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일이다. 북미주동창회를 통해 이처럼 차분한 성격의 조용히 미소 짓는 모습으로 남을 배려하는 김영미 동창을 만난 것은 축복이라 생각한다.

대학 졸업 후 김영미 동문(교육심리, 72)은 한국행동과학 연구소에 인턴으로 들어가 아동 상담실의 꽃내기 상담자가 되었고, 대학원 진학을 권유 받아 월급을 받으면서 본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대학원 졸업식에 꽃을 들고 와 축하해 줄 남자친구가 없어서 민망한 상황이었는데, 마침 김 동문의 작은 어머니께서 친구의 동생을 소개해 주셔서 당시 군의관으로 복무하고 있던 심완섭 씨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 후 강원도 현리 큰 강가 근처에서 장날에 맞춰 포장도 되지 않은 길을 버스 타고 다니며 장을 보고 물도 길고 시냇가에서 빨래도 하며 신혼 살림을 차렸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김 동문은 1976년 6월 말에 남편과 2개월 된 딸을 안고 커다란 이민 가방 두 개를 끌고 김포 공항에서 친지들의 환송을 받으며 미국 길에 올랐다. 미국 Seattle에서 입국 수속 후 영주권을 받았다고 이야기 하는 그녀는 공항 창 밖으로 보이는 흰 눈이 덮인 높은 산(Mount Rainier)이 신기했다며 그때를 되돌아보며 잠시 감회에 젖었다.

미국에서 처음 자리 잡은 곳은 Detroit, Michigan - 부군께서 시내 대학 병원에서 4년간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곳이다. 그 후 김 동문 부부는 Richmond, VA로 옮겨 fellowship을 끝낸 후 다시 정착한 곳이 현재 살고 있는 Philadelphia 근교이다. 날씨가 서울과 비슷해 낯설지가 않아 오랜 세월을 살아오게 된 것 같다고 덧붙인다.

김 동문은 1986년 이태영 변호사께서 필라델피아를 방문하셨을 때 조직된 필라델피아 여성회 회장으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14년을 헌신해 오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필라 여성회 활동의 하나로 한국 교포들을 위한 열린 교육 강좌를 제공했고 20회의 수필집도 출판했다고 한다. 올해로 35주년을 맞이하는 필라 여성회 가정상담소는 그동안 임원들의 자원 봉사로 상담 활동이 이루어졌고, 이제 그녀에게는 그동안의 상담소 활동을 정리하여 글로 남겨야 하는 일이 남아있다고 한다.



또한 개인적인 상담 내용은 절대적으로 비밀을 지켜야 하는 조심스러운 작업이라고도 말한다.

필라델피아 여성회 가정 상담소는 가정 문제를 호소하며 걸려오는 전화를 통해 그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더러는 만남을 통해 같이 해결책을 찾는 일을 해왔다. 그 후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방법으로 소통하게 되면서 전화 상담은 많이 줄어 들었지만 아직도 전화로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물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다고 한다. 이제는 많은 정보와 교육으로 한인 가정 폭력 방지 해결에 도움이 되었다고 김 동문은 자세히 설명해준다.

평소에 책을 가까이 하며 즐겨 읽는 김동문은 소장된 많은 한국 책들이 결국은 다 버려질 것을 안타까워 했는데, 필라델피아 여고 동창회 회장으로 봉사하면서 ‘이화 작은 도서관’을 열고 동문들로부터 기부 받은 ‘버리기 아까운 책’을 서로 나누어 읽을 기회를 마련하여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또한 그녀는 일본 꽃꽂이 Ikebana 그룹에 오랫동안 참여하면서 꽃 전시회 등 꽃에 대한 활동 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 단체를 운영할 때 정직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것을 조목조목 기록하고 의논한 후에 결론을 얻는 민주적인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기회였다고 한다.

부군 심완섭 박사께서 “아내는 하고 싶은 것이 무한대로 많고 항상 새로운 project가 많아 늘 협조하려 한다”고 2020년 동창회보 특집 <남편들의 이야기>에서 진솔하게 고백하신 것처럼, 김영미 동문은 다양한 취미 속에 날마다의 삶을 온전히 즐기고 있다. 그녀는 진흙, 금속, 유리 또는 보석 등으로 작품을 만들어 지역 아트센터에서 주최하는 전시회에 가끔 출품하곤 했다고 한다.



슬하에 남매를 두고 있는 김동문 내외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딸이 Los Angeles에 살고 있고, 컴퓨터 계통의 일을 하는 아들이 집 가까이 살고 있어서 여러모로 도움을 자주 받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일밖에 모르던 남편이 은퇴를 한 후에는 함께 정원 가꾸기와 집안 일을 하며 지내고 있고, 앞으로는 시간에 구애없이 여행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한다.

김영미 동문은 2015년도 북미주동창회 연례총회 모임 (New England Cruise)에 친구와 함께 참석한 것을 계기로 북미주동창회와의 첫 인연이 시작되었다. 잘 짜여진 프로그램과 일사분란하게 일을 처리하는 임원들의 활동이 인상적이었다고 솔직히 이야기 한다. 동창회는 대학시절의 공감대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언제나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부모님과 같은 위안을 얻는다.

북미주동창회의 차기 회장으로서 그녀는 현재 2023년 필라델피아 연례총회를 위해 벌써부터 만반의 행사 준비를 하고 있다.

편집부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고)강일희 동문을 기리며



늙음은 말없이 찾아온다. 인생의 후반은 마무리의 시간들이다. 정리하며 즐기며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황당한 일들이 뜻하지 않게 다가옴으로 우리는 좌절하며 슬퍼한다. “좋은 아내로서, 좋은 엄마와 시어머니, 또 좋은 할머니로 오래 지내기 원했던 순박하고 순진한 사람이었다”고, 부군 이영무 박사는 먼저 하늘나라로 간 아내 강일희(의대, 66) 동문을 그리워한다.

아내는 자기가 이화여대 의과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던 것은 학교와 의학 협회에서 받은 장학금 덕분이라고 종종 이야기를 했고, 고마운 마음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다. 아내가 의과대학 교수직을 마다하고 개인 병원을 차린 것은 한국에 있는 형제 자매의 생활비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고 부군은 들려주며, 그래서 일찍부터 모교에 후원금을 보낼 수 없었다고 설명해 준다. 은퇴 얼마 전부터는 한국에 송금을 안 해도 되어서 여유가 생겼는데, 갑자기 2007년 가을에 그녀는 뇌졸중으로 입원, 병원 일도 못하며 회복을 위해 7년 동안 고생했다는 딱한 사정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췌장암으로 이어져
3년간 안쓰러운 투병을
하다 마지막으로
친정 어머님을 뵈러
떠난 뉴저지 Fort Lee
에서 여행 중에
소천했다는
안타까운
슬픈
사연이다.



이대 서울 병원의 건립 소식에 한없이 기뻐했던 아내 (고)강일희 동문은 항상 소원이던 후원금을 처음에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나중에는 10년을 투병하느라 정신이 없어 본인이 직접 하지 못했었다고 부군은 안쓰럽게 털어 놓았다. 아내의 뜻을 잘 이해하기에 부군께서는 대신해서 2019년에 이화여대 북미주 의과대학 동창회로 이대서울병원 후원금(1만불)을 보내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고인의 뜻을 존중하여 조금이라도 후원금을 더 기부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그의 희망이기도 하다고 조용히 말한다.

‘뒷모습이 어여쁜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다.’는 나태주 시인의 말처럼, 있는 듯 없는 듯 은은한 향기를 풍기는 (고)강일희 동문이 그립다. 마음 한 구석이 서려지며 왜 우리는 동창회를 통해 일찌기 좋은 만남의 기회를 만들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 뿐이다. 그러며 먼저 떠난 사랑하는 아내의 귀한 뜻을 받들어 실천해 준 부군 이영무 박사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우리 동창회와의 인연을 소중하게 지켜갈 수 있기를 진솔한 마음으로 바라본다.

(고)강일희 동문은 1966년 의대를 졸업하고 도미, Yale Medical School에서 Internship을 마치고 1969~1971년 Pennsylvania주 Pittsburg의 Children’s Hospital에서 소아과 Residency를 끝낸 후 Fellow at UC Davis Medical School (1972)에서 Clinical Assistant Professor로 재직하다가, 1973년부터 소아과 개업을 해왔다. 그녀가 소아과를 택하게 된 것은 워낙 아이들을 좋아하는 성격에 7남매의 맏이로 자라며, 한 번은 동생이 친구들과 놀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 때 그녀는 언젠가 어린이들을 돌보는 여의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게 된 것 같다.

부군 이영무 박사는 서울대학교 문리대 화학과를 1963년에 졸업, 공군학사 장교로 군복무를 마친 후 68년에 도미,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에서 생화학 분야로 1973년에 박사 학위를 수료했다. 그후 3년간 미시간 주립대 교수로 지내며 University of California at Davis의 분자구조 연구소 Director로 근무하다 2006년에 은퇴했다.

(고)강일희 동문 부부는 캘리포니아 Sacramento 교외 Carmichael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보금자리를 꾸미고 아들을 키우며 열심히 살아왔다. 아들이 장성하여 결혼, 며느리를 얻고 3명의 손자들이 태어나는 축복 속에 (고)강일희 동문은 늘 감사하며 가정의 돈독한 관계(Cohesive Family)가 유지되기를 무척 희망하며 실천해 왔다고 한다.

두 사람은 1970년 10월에 (고)강 동문이 San Francisco에서 열린 소아과 학회에 참석차 갔을 때 서로를 아는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난 후 부부의 인연까지 맺게 되었다. 첫눈에 서로가 훌쩍 반해 너무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듬해 1971년 3월 Yale 대학에서 결혼식을 올렸으며 그때를 추억하는 모습에서 마음이 쩡해진다. 당시 많은 친구가 초고속 결혼이라고 놀렸고 어느 교수는 “네가 좋아서라기보단 캘리포니아 기후가 좋아서 결혼한 것 아니냐”고 농담도 했으며 “그런 점도 있었겠지요”라고 빙그레 웃어 보인다.

뇌졸중으로 뜻하지 않게 일찍이 은퇴를 하게 된 (고)강 동문 부부는 그 후 10년은 Second career로 손자 셋을 돌보는 Nanny였다고 스스로 없이 고백한다. 하지만 틈틈이 좋아하는 성악(아내는 소프라노, 본인은 테너)과 피아노 치기를 함께 즐기며 합창단과 교회 성가대에서 봉사를 하기도 했다고. 아내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부군 이영무 박사는 크리스천 후보생 이었는데 은퇴

후 하나님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변증하는 Apologist가 되었다고 고백하며 관련된 책도 출판했다고 스스로없이 이야기 한다. 이들에겐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이 또 하나의 습관(취미)이 되었다.

(고) 강일희 동문 부부는 은퇴 후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삶 속에서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 고민을 좀 했다고 한다. “단순한 생존자인가? 오감(본능)만을 추구하는가?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지는가?” 그래서 부부는 오감을 벗어나 영적인 삶이 되기를 바라며 철학을 겸비한 생활을 추구했다며 부군은 진솔하게 이야기한다. 또 ‘아는 만큼 보인다’의 뜻을 헤아리는 가운데 이들 부부는 책을 많이 읽게 되었다고 한다.

“원만한 사람 관계를 유지하라”고 아내는 여러 번 남편에게 권면하며 “그래야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으며 실천해 온 (고)강 동문의 인품을 느끼게 된다. 부군 이영무 박사는 “강의실이나 실험실에서만 살던 사람이라 사회 생활에서 많이 뒤쳐져 있었지요”라고 실토하며, 그런 점에서 아내는 좋은 조언자(Mentor)였다고 펍 아쉬워 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아내 (고)강 동문은 불완전한 부부가 만나 협력하고 보완하는 가운데 온전해 가려고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 온 현숙한 아내의 모습으로 남아 있다. 잠시 구약 성경 잠언(19장 14절)의 말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를 떠올리며 살아 생전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본다.

편집부



옛 교정에서...

옛 교 정 에 서 :



태극기와 함께...김정희 (가정, 60)



친구들과 함께... 구광자 (가정, 67)



교문 입구 다리 위에서



김활란 총장님 동상 앞에서



은사님과 함께... 최경숙 (영문, 66)



친구들과 함께...



은사님과 함께... 김정희 (가정, 60)



은사님과 함께... 한영숙 (영문, 60)



김옥길 총장님과 함께... 권오화 (가정, 61)

옛 교정에서...



김영미 (교심, 72)



친구들과...



졸업 (단기 4293) 서은숙



은사님과...한영숙 (영문, 60)



졸업식 김정희 (가정, 60)



1959 가정 학과장님과



Kim, Soonsung



은사님과 함께...



1961 졸업 권오화 (가정, 61)



최경숙 (영문, 66)



친구들과...



김광자 (불문, 66)



동대문 병원.. 장명주 (의대, 77)



1966 영학관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1959 이대교정-친구들과...



친구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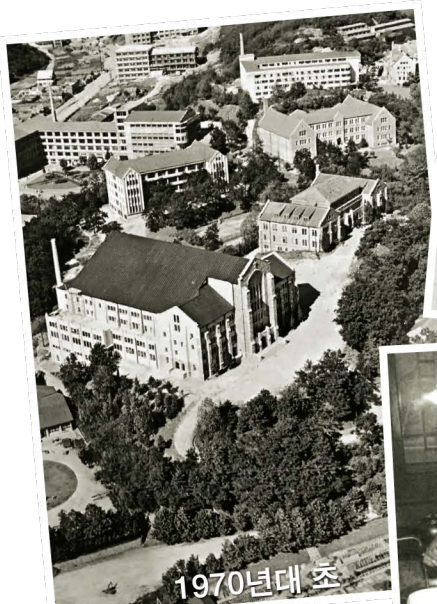
옛 교정에서...



寬



習



1970년대 초



요리 실습



요리 실습



부엌에서



Tea 대접



예절 실습



C 학관



이대 입구 다리 앞



졸업 파티



졸업 파티



졸업 파티

옛 교정에서...



第二回體育大會
文理大學生會

문리대 체육회 1960.10

1. 배구	11월 6일	1. 8	1. 13	1. 15
2. 축구	11월 13일	2. 10	2. 22	2. 24
3. 농구	11월 15일	3. 10	3. 10	3. 10
4. 야구	11월 15일	4. 10	4. 10	4. 10
5. 테니스	11월 15일	5. 10	5. 10	5. 10
6. 수영	11월 15일	6. 10	6. 10	6. 10
7. 체조	11월 15일	7. 10	7. 10	7. 10
8. 유도	11월 15일	8. 10	8. 10	8. 10
9. 권투	11월 15일	9. 10	9. 10	9. 10
10. 씨름	11월 15일	10. 10	10. 10	10. 10
11. 배드민턴	11월 15일	11. 10	11. 10	11. 10
12. 탁구	11월 15일	12. 10	12. 10	12. 10

어머니, 모든 예술의 근원

장소현 (미술평론가, 시인)

“루브르박물관 228년 역사상 첫 여성 관장 탄생”

이 기사를 읽는 순간 속이 시원하게 뽕 뚫리는 느낌이었다. 예상했던 대로 드디어 여성들이 미술계의 정점을 찍기 시작했구나, 기나긴 세월 완고하게 버티고 있던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벽을 과감하게 깨부수고 드디어... 참 대단하다. 그동안 일그러진 사회제도 때문에 억눌려 있던 여성들의 재능이 화산 폭발하듯 터져 나올 것은 확실한 일이다.

바야흐로,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대세다. 특히 문화, 예술 쪽에서 그렇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세계 미술계의 중심 화두는 여성미술이었다. 세계 여러 곳의 중요 미술관에서 대규모의 여성미술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열리지 못한 것이 큰 유감이다.

한국의 경우, 문학계는 이미 여성작가들이 상당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뛰어난 클래식 음악 연주자도 여성이 더 많다. 방송계에서는 여성작가들이 압도적으로 막강한지 이미 오래 되었다. 미술 쪽에서도 최근 들어 젊은 여성작가들이 도약하여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2019년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후보 4명 모두가 여성 작가였고, 제58회 베니스 비엔날레에 참여한 한국 작가들도 전원 여성이었다. 서울, 부산, 대구 시립미술관을 이끄는 수장도 모두 여성이 임명돼 눈길을 끌었다. ‘미술계 우먼파워가 경매, 화랑, 화단을 장악했다’는 평가가 전혀 낯설지 않다.

우리 미주 한인 문화 예술계에서도 여성들의 활동이 압도적이다. 작품의 질에 대해서는 함부로 평가할 수 없지만, 숫자적으로는 문학, 미술, 음악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작가가 월등하게 많다. 여성이 뛰어난 가장 근본적인 까닭은 ‘어머니’이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한다. 종족 보존을 위해 새끼를 낳아 길러야하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강인하게 태어나고, 본능적으로 모성을 바탕으로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예술에서도 마찬가지다. 따지고 보면 예술 창작 활동의 근본은 출산, 육아, 모성애나 같은 것이다. 그러니 여성들이 우월할 수밖에 없다.

어머니는 모든 것의 근원이다.

극성스러운 전염병 때문에 집안 감옥살이가 길어지고, 이리저리 불안한 나날을 견디다보니, 마음이 거칠어졌다. 환기(換氣)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잔뜩 웅크리고 지낸 방의 창문도 활짝 열고, 움추렸던 마음에도 신선한 공기를! 이럴 때 그리워지는 것이 넉넉하고 따스한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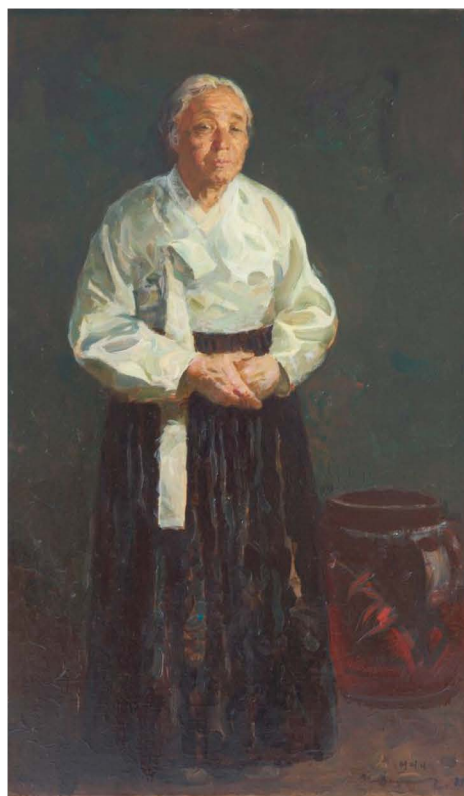
의 품이다. 외롭고 어려운 때일수록 어머니의 품은 믿음직스럽고 포근하다. 내친 김에 화가가 그린 어머니 그림 두 점을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고 싶다. 어머니 그림을 보는 순간 거칠고 험한 공기로 가득 찼던 마음이 환기가 되리라 믿는다.

변월룡의 〈어머니〉

화가 변월룡이라는 이름을 처음 듣는 이가 있을 지도 모르겠다. 러시아 한인(韓人) 화가 변월룡(1916~1990)은 리얼리즘 미술에서는 단연 한국 최고의 작가로 꼽힌다.

여기 소개하는 어머니 초상화는 변월룡이 1985년에 그린 작품으로, 생전의 어머니 나이가 다 되어서 그린 거의 마지막 작품이다. 실제로 어머니는 40년 전인 1945년에 돌아가셨다. 화가는 이 그림을 그린 지 얼마 안 돼서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5년 뒤 숨졌다.

백발의 어머니는 흰 저고리에 치마 차림이다. 늙어서 한쪽 눈이 거의 감긴 채, 그러나 두 손을 매만지며 환영처럼 서 있다. 흘러내린 치마는 짙은 갈색이어서 거의 뿌리처럼 보인다.



▲ 변월룡 〈어머니〉1985, 유화, 119.5 x 72cm

어머니 뒤에는 장독이 하나 놓여 있다. 굵은 어머니와 향아리, 두개의 곡선이 어우러진 정서가 그림에 서사를 붙여넣어 그림을 단순 인물화에 머물지 않게 한다. 미술전문가들이 이 그림을 최고의 작품으로 꼽는 이유다. 그리고, 그림 맨 밑 오른쪽 귀퉁이에 한글로 ‘어머니’라고 적었다. 평생 고국을 그린 화가에게 어머니는 고국과도 같은 말일 것이다.

화가는 왜 말년에 어머니를 그린 것일까? 변월룡을 한국에 알리는 일에 앞장선 미술평론가 문영대 씨는 이렇게 설명한다. “러시아 말도 모른 채 홀로 가족을 건사한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며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회한이 담겼다.”

화가 변월룡은 러시아 레핀미술대학을 수석 졸업하고, 이후 정교수가 된 당대 최고 수준의 화가였다. 그가 사표로 삼은 렘브란트를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뛰어난 작품을 남겼다. 그는 냉전의 희생양이기도 했다. 북한에 파견돼 1년간 북한 미술의 기틀을 세웠음에도 귀화 요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숙청돼 북한에서 그 존재가 지워졌다. 남한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제대로 된 조명이 없었고, 우여곡절 끝에 2016년 탄생 100주년 회고전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이후 서서히 관심과 평가가 높아지고 있다. 멀리 타국땅에 살면서도,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을 평생 지켰고, 자신의 비석에도 한글로 이름을 새겨놓게 한 화가 변월룡. 그가 그리움을 담아 그린 ‘어머니’는 참으로 많은 것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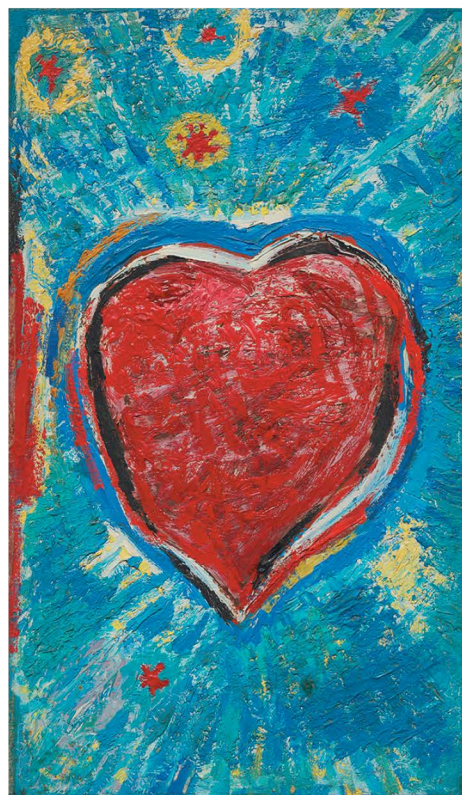
수화 김환기의 〈성심〉

김환기 화백에 대해서는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작품 세계는 자세히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그림값이 가장 비싼 화가로 유명하니까...

김환기 화백의 〈성심(聖心)〉은 얼핏 보면, 김환기의 작품이 맞나 싶을 정도로 특이하고 독보적인 작품이다. 하지만, 인간 김환기를 잘 보여주는 감동적인 작품이다. 그림에 담긴 사연을 알고 나면 감동은 한결 커진다. 판지에 유화로 붉은 하트를 크게 그린, 소품이지만 강렬한 그림이다. 성심(聖心)은 거룩한 사랑이란 뜻이다.

이 그림은 김환기가 파리에 머물던 1957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미칠듯이 괴로워하며, 종일 흐느껴 울면서 그린 작품이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과 어머니를 향한 애절한 마음이 오롯이 담긴 그림인 것이다. 부인 김향안은 “고국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부음을 받고 환기는 미칠 듯이 괴로워했다. 울면서 성스러운 심장을 그렸다”고 회고했다.

화면의 구도는 매우 간결하다. 피를 쏟는 듯한 붉은 하트가 중심에 크게 자리 잡고 있고, 배경의 푸른 하늘로 솟아 날아오르는 별 몇 개가 전부다. 어머니 심장에서 뿜어나온 열정이 하늘에 닿아 별이 되었다는 상징일까? 사실 이런 그림을 놓고 조형적 구도가 어떻게 미학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그림은 미학 이전에 정서의



▲김환기 〈성심〉 1957, 보드에 유채, 46 x 27cm

표출이고 형식을 넘어서는 내용의 감동인 것이다. 어머니 생각에 통곡하면서 그렸다는 사연을 알고 그림을 보면서 누군들 어머니 생각을 하지 않으랴.

‘하트’는 김환기 작품에 이후에도 다양하게 변주되며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세상을 떠나기 불과 한 달 전에 그린 점화(點畵)에도 하트가 등장한다. 어머니를 그리는 애절한 마음이란 그런 것이다. 자식이 외로울 때, 힘들고 아플 때 슬그머니 나타나시는 어머니처럼 하트가 그림에 나타난다. 여성 미술의 도약을 주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모든 예술 뒤에 있는 어머니의 그림자를 읽고, 냄새를 맡는 일도 소중한 것이다.

“여성이 완벽한 존재는 아니지만 남성에 비해서는 ‘반박할 여지없이’ 우수한 존재다. 현대사회의 거의 모든 문제는 권좌를 지키는 데 몰두해온 노쇠한 남성 정치가들이 불러일으킨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리더십 관련 강연에서 주장한 말씀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말에 동의한다. 실제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근본적으로 우수한 존재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미래의 세상을 상상해 봐도 역시 그렇다.

문호 괴테가 200여 년 전에 한 말씀처럼 결국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여성이다. 인류 최고의 명작 중의 하나인 〈파우스트〉의 마지막 대사는 이렇다. “형상할 수 없었던 것은 / 이미 천상에서 이루어졌도다./영원히—여성이신 자/우리를 이끌어 올리도다.”



오늘 우리의 이론, 어디로 가는가 이효재 교수님을 기리며



백영희 (사회, 64)

2020년 10월 4일, 세계는 큰 별이시고 우리 모두의 큰 어른 이신 ‘이효재’ 교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회학자이자

여성학자이신 이 교수님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국여성단체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한국 여성학의 이론을 확립하고 여성단체들을 창립하고 이끌어 나가는 등 현장에서의 여성운동을 주도해 왔습니다. 그는 1991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설립,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문제 해결의 주춧돌을 놓았고, 여성 차별 제도로 지목됐던 호주제를 2005년 폐지하는데도 구심점이 되셨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의 이론, 어디로 가는가〉이 제목은 처음으로 서구의 관점이 아닌 우리 사회의 역사적 맥락에서 이 이론을 여성학의 학문적 과제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이효재 교수님은 제게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해 주신 분입니다. 열 아홉 살, 사투리 쓰는 촌티나는 여학생이 서울의 하얀 피부의 차도녀(차가운 도시녀)들이 꼭 자리 잡고 있던 그 시절, 이화여대 캠퍼스에서 기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셨습니다. 교수님은 신문의 사회면도 읽지 않는다고 나무라셨으며, 4.19 때에 신작로를 피해 다녔다는 우리에게 ‘지식인으로서 불의를 못 본 척 하는 것’을 수치심으로 여기라고 하셨던 은사입니다.

저는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 생각의 변화는 사회에 대한 인식의 세계 확장이었고, 제 의식의 변화는 그분으로부터 이었습니다. 미국으로 와서도 저는 고향에 돌아갈 것을 늘 갈망 했습니다. 돌아가서 그 분을 따라 여성사회운동을 할 것이란 ‘희망’도 품었었지만 그 길은 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생각일 뿐, 저는 압니다. 선생님이 일생 동안 우리에게 보여 주신 여성과 소외 받은 이들에 대한 그 사랑은 제가 감히 따를 수도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군부 시절 해직 교수가 된 후 여성 운동의 방향을 세우시고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 쟁점으로 승화시킨 분입니다. 미국 오셔서 한인 교회를 다니면서 위안부의 국제적 쟁점에 대한

강의를 통해 한인들의 협조를 호소하셨을 때, 그 당시 미국에서 공립학교 교사로 활동하고 있던 저를 칭찬하시며 제가 하는 일이 바로 여성 사회운동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한국에 가게 되면 늘 학회에 저를 세우시면서 이민 사회에서 모국어의 중요성, 가족 안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아이들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 가를 공부하라 하시고 또 강의할 기회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수 많은 제자들이 그분을 회고하고 추모하겠지만, 저는 아직도 미국에 있어 선생님의 영정에 꽃 한 송이도 못 올립니다. 주님, 제 기도를 받아 주소서. 이효재 교수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도 드립니다.”

방선숙(영문, 64)동문도 이효재 명예 교수가 향년 95세로 창원에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The New York Times에서 읽으며 마음이 아팠다. 여성운동의 외길만으로 헌신, 평생을 여권 향상에 헌신해 오신 이효재 교수님의 별세로 아쉬운 마음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방 동문은 교양 과목으로 이 교수님의 사회학 강의를 듣던 학창시절을 뒤돌아보는 가운데 이 교수님의 많은 업적을 새겨보며 대한민국의 여성운동 선구자로 꼽히는 위대한 교수님을 추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뜻있는 사람끼리 모이면 불가능은 없다.’ 이효재 교수님이 자주 쓰신 말로 기억하고 있는 애제자 김평화(사회학, 68)동문은 이교수님께서는 이화여대에 한국 최초의 여성학과를 만드는데 많은 힘을 쓰셨다고 들었다며 졸업 후 잠시 조교로 일했을 때를 회상해 보았다. 그 후 한국을 떠나 하와이의 동서문화 교류 센터에서 공부할 때 (1969~1974) 이효재 교수님이 제자를 챙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히 방문해주셔서 남편과 함께 교수님을 모시고 하와이 관광을 다녔던 때를 기억하며 사탕수수밭을 지나다 찍은 사진이 유일하게 남아있다고 펍 아쉬워한다. 1972년 하와이 방문시 김평화 동문 부부와





사진을 태우며



이혜리 (사생, 60)

2021년 4월 30일

사진을 태우는 일은 하나의 의식이었다. 이를테면 살아서 혼자 조용히 치르는 자신의 장례식 같은...

우리는 모두 지구별에 잠시 놀러 온 복 받은 여행객들이다. 이곳에서 소풍을 끝내면 먼 길을 떠나야 하고 이제까지 내 것이라며 사랑하고 아껴온 많은 것들을 고스란히 남겨두고 떠나게 된다. 그렇게 남겨진 나의 분신들을 되도록이면 깔끔하게 정리해서 처치 곤란한 짐 덩어리가 되지 않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이리라. 사진은 그 중에서도 큰 자리를 차지하는 품목이다.

나는 여행을 좋아한다. 거창한 여행이라기보다 그저 훌쩍 떠나고 싶은 충동을 항상 가슴 속에 지니고 산다. 그렇다고 그런 여행을 자주 떠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요즘 시대의 여행은 인터넷에서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잘 곳, 먹을 곳, 방문할 곳, 시간, 날씨까지 다 맞추어 기계처럼 빈틈없이 움직여야 한다. 예약된 숙소를 찾아가는 스트레스도 피할 수 없고 시간을 맞추어 가는 일도 숨이 막힐 지경이다. 이와는 달리 나는 마음 내키는 곳에서 쉬고 구경하면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 먹을 것을 나누기도 하고 잠시의 착한 친구가 되곤 하는 여행 스타일을 좋아한다.

잘 곳을 찾지 못해 난감할 때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공들여 꾸며 놓은 RV 덕택에 하룻밤 주차할 곳을 찾는 수고 정도로 비교적 쉽게 해결이 된다. 이런 여행을 하려는 이유는 새롭고 낯선 대상들에 비추어 나를 재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또렷한 기억보다 희미한 연필 자국을 더 신뢰하라는 말을 기억하며 열심히 사진을 찍어냈다. 사진이 없으면 여행의 기억이 다 사라지기라도 할 것처럼 부지런히 셔터를 눌렀던 결과물은 이렇게도 많이 쌓였다.

사진을 펼쳐 놓고도 그 속에 들어 있는 기억 속에 빠져 헤매다 끝을 맺지 못하고 다시 넣어두기를 몇 차례나 되풀이하다가 드디어 단호한 결심을 하고 사진들을 속아냈다. 아이들에게 나누어 줄 것은 따로 분류해 놓고 나머지 사진들은 미련없이 들고 마당으로 나가 낙엽을 태우는 간이 아궁이 앞에 자리잡고 앉았다. 불 위에 얹기 전에 한 장씩 들여다 보며 또렷이 기억나는 지난 날의 기억 속을 한 차례

더 헤매인다. 불길 속으로 사라져 가는 얼굴들, 시간들, 추억... 소리도 들리고 냄새도 살아난다.

엄마를 하늘나라로 떠나 보낸 가여운 동갑내기 일곱 살 승진이, 첫눈 내린 날 덕수궁 석조전 앞에서 만나 추운 줄도 모르고 끝없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사람, 어린 아이들 셋을 데리고 낯선 미국으로 삶의 터전을 옮길 때는 얼마나 힘든 삶이 앞에 놓여 있는지를 몰라서 용감할 수 있었겠지.... 유난히도 사치스럽고 멋쟁이였던 키가 큰 우리 엄마는 지금 보아도 세련되고 곱다.

부산 피난 시절 여고 선생님과 친구들과 같이 찍은 아주 작은 사진도 한 장, 뒷면을 보니 4286, 9, 7.이라는 글자가 있다. 그때는 날짜를 서기가 아니고 단기로 표기했던 것 같다. 나도 이때까지도 우리가 단기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던 아주 아득한 기억이다.

사그라지는 불 앞에서 지나온 나의 삶을 뒤돌아보다 보니 어느덧 저녁 밥 할 때가 지나 있었고, 나는 젊음의 뒀안길에서 이제는 떠나 타고 남은 재 앞에서 있는 여든 네 살의 할머니로 돌아와 있다. 그 때는 원하는 것도 많았고, 하고 싶은 말도 많아서 무엇이든 다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던만 이제는 그 모두가 아니구나. 정말 아니라고!!

내 몸 간수할 수 있을 때까지만 살게 해 달라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기도한다. 아픈 날이 안 아픈 날보다 자꾸 더 많아지는데 아플 때는 엄마 사진을 꺼내본다. 나도 자식들에게 꼭 이만큼의 의지처로 기억되겠지.



대학교까지 여학교를 다녔다고요??



전월화 (의대, 72)

“중고등학교, 대학교, 의과대학교까지 모~두 여학교에 다녔다고요?” 이 질문은 수련의 프로그램 디렉터가 물었던, 그리고 내가 젊음을 보내었던 메디컬 그룹에 인터뷰하러 왔을 때 들었던 코멘트였다. 코멘트는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냄새가 났다. 여자 중고교를 거쳐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학업을 마친 나는 미국에서 태어난 나의 두 딸을 여자 중고교에 보냈다.

딸들의 single gender education에 대한 나의 철학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나는 single gender education의 성공적인 부산물이 아니었던가! 나의 철학은 첫 딸의 학교 선택을 위해 방문했던 여학교에서 다시 확인되었다. 처음으로 내 눈에 들어온 광경은 삼삼오오 잔디에 둘러앉아 무언가 시끄럽게 토론하는 광경이었다. 그런데, 젓가락을 이용해서 긴 머리를 틀어 올린 학생이 있었나 하면, 틀어진 치맛단에 핀을 꽂은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학생도 있었다. 화장한 학생은 보이지 않았다. 참 맘에 들었다. 남학생들이 주위에 있었다면,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single gender education에 좋은 편견을 갖고 있는 나는,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지난 며칠 동안 이화여자대학교, 나의 모교에 대해서, 그리고 single gender education 토픽을 묵상하며 보냈다. 여성이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 참정권, 사회운동의 참여를 막고 있던 19세기에 세계 이곳저곳에서, 여성만을 위한 중등학교, 대학교, 의과대학을 만들었던 여성 선배들의 지혜와 용기에 놀란다. 그리고 여자학교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이해된다. 그런데 single gender education의 장점은 단점보다 많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 주게 되었다. 산 증인이 이화 여인들이다.

이화여자대학교라고 하면 ‘제일’, ‘최고’라는 수식어가 자주 붙어 다닌다. 조선의 역사상 ‘제일’ 처음으로 여성 교육을 시작했던 이화학당을 모체로, 이화여자 대학교가 만들어지고, 이화여자대학교는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여자 대학이다. 그뿐이 아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대한제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여성 진료센터(1885년)를 만들었다. 그것이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작이다. 그리고 ‘최초’ (1903년) 간호 교육 기관인 간호사 양성소가 설립된 곳도 이화이다. 간호교육기관 설립에 대해서는 서울대학 전신이 먼저라는 이견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이화의 역사는 근대 한국의 역사이다. 이화학당은 188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35년 전에 한 명의 여학생

을 데리고 시작된 멋진 학교이다. 매사추세츠 주에서 목사의 딸로 태어난 메리 스크랜튼 여사(1832-1909)는 52세에 과부가 된다. (북)감리교 의료선교 차 조선에 파견된 아들 윌리엄 스크랜튼 의사를 따라 조선 땅에 발을 디딘다. 메리 스크랜튼(이하 매리) 여사는 미국 ‘최초’의 여성 전도사로 한국에 파견된 여인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배재 학당이 역시 감리교 선교사, 헨리 아펜셀러에 의해서, 연세대학의 전신 광혜원이 알랜 의료선교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러한 학당들은 근대식 중등교육 기관의 시작이었다. 한국의 서양식 교육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된 중요한 터닝 포인트이다. 관립학교 대학교 전신은 10년 후에, 중등 남학교가 13년 후에, 여학교가 22년 후에 세워졌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인 이화 여자전문학교가 1925년에 탄생한다. 거의 20년이 지난 1946년에 이화여자대학교로 승격된다.

그리고 이화는 ‘제일’ 많은 여성 지도자들을 배출하였다. 이화학당, 이화대학을 묶어서 예를 들어보자. 유관순 순국열사, 김순애 ‘최초’의 여성 작곡가, 박혜진 ‘최초’ 여성 법의관, 윤하나 ‘최초’ 여성 비뇨기과 의사, 이정애 한국 ‘최초’ 간호사, 정성임 육사 ‘최초’ 여성 교수, 서양순 한국 ‘최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제일’ 처음으로 여성 변호사가 된 이태영 등 일일이 이름을 올리기에는 지면 부족이다. 김일엽스님, 김활란 총장, 최초 여의사 박에스터의 이름을 빼놓을 수는 없겠다.

세상에 공헌한 많은 졸업생을 이화는 어떻게 길러낼 수 있었을까? 이 동문들이 갖고있는 공통분모는 무엇인가? 좋은 집안 출신? 사회적 연계? 아니다. 그것은 이화이고 이화의 반석은 바로 기독교 정신이다. 그리고 이화는 여성만을 위한 전문 교육 기관이라는 점이다. 여성으로 세상을 리드 할 역사적, 사회적, 생물학적 요소를 이화가 줄 수 있었다. 나아가서 작게는 가정에서, 크게는 사회에서 소망을 나르고 실천하는 지도자가 되어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쳤다. 출신 가정, 출신 지방, 사회적 연계 등은 공통분모에 들어갈 수 없는 편파적인 요소일 뿐이다.

그렇다. 바로 이화라는 반석은 기독교라는 또 다른 반석 위에 세워져 있었고, 두 반석 가운데 단단한 보석으로 ‘여성 교육’이라는 무한한 동력이 함께 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교육세계에서 성숙한 여인들의 자긍심은 눈에서 반짝인다. 그들의 성취는 겸손한 얼굴을 빛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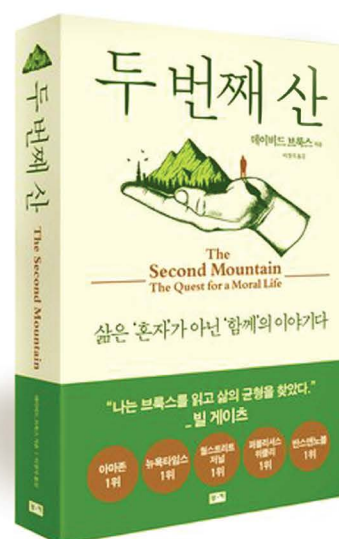
장동숙 (영문, 82)

에릭슨(Erik Erickson)은 인간의 발달 과정 중에서, 청소년기에 첫 번째 정체성의 위기를 맞이하고, 중년기에 “제2의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중년기에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영적, 인간관계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중년 남성들은 통상 젊음의 상실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공포, 실존적인 물음, 우울증, 쉬지 못함과 조급함, 지루함과 정체감stagnation, 한계 의식, 창조성의 상실 등을 경험합니다. 중년 여성들에게는 빈둥지 증후군, 관계의 변화, 낮은 자존감, 정서적 불만족, 낭만이 사라진 결혼, 끝없는 일과 가사 노동, 성적 마찰과 불만족, 생리적인 변화 등의 문제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브룩스(David Brooks)는 인간 발달 단계에 따른 위기가 아닌, 삶의 위기를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즉, 외로움의 위기, 불신의 위기, 의미의 위기, 부족주의tribalism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브룩스는 인간의 일생을 ‘두 개의 큰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산은 자아 ego를 세우고 자기 self 규정에 중심을 둔 개인주의적인 산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부모에게서 독립하고 성공과 족적을 남기려 애쓰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산의 중심은 ‘나’입니다. 문제는 이런 개인주의적이고 능력 중심의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사회의 자유라는 물속에서 익사하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산의 한계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첫 번째 산에서 어떤 이는 정상에 오르지만 곧 환멸에 빠지며, 어떤 이는 한계에 부딪혀 고통 속에서 그대로 추락하여 인생의 계곡을 지나기도 합니다. 이때 인생의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자는 두 번째 산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두 번째 산은 인생의 골짜기에서 고통을 받지만 각성하여 새 방향을 찾고 성장하면서 오르는 산입니다. 이 산은 자아를 버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letting go 곳이고, 남에게 봉사하며 배우는 곳이며, 부족한 사람들 사이에 자기를 단단히 뿌리내리고 그들과 손잡고 나란히 걷는 평등주의적 삶을 사는 곳입니다. 첫 번째 산에서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소홀했던 관계의 끈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관계주의적 세계관에

바탕을 두며, 인간관계에의 헌신과 영혼의 욕구에 귀 기울여 듣습니다. 첫 번째 산에서 내려와 두 번째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기쁨을 추구하면서 인생의 궁극적인 선을 지향합니다.

저자는 이 책의 목적을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는 개인이 첫 번째 산에서 두 번째 산으로 넘어가는 과정과 방식을 기술하여, 더 깊고 더 기쁜 인생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이고 매력적으로 독자에게 제시합니다. 둘째는 사회가 첫 번째 산에서 두 번째 산으로 넘어갈 때 필요한 조건을 제안합니다. 연대와 결속의 위기로 큰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사회는 자신과 사회와의 갈등, 개인과 집단 간의 긴장이 늘 팽팽한 초개인주의 hyper-individualism 세계입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사람들이 관계와 공동체와 헌신을 향해 나아가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문화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pp. 25-26). 그렇게 브룩스는 한 사람이 두 번째 산에 오르게 되는 과정과 방식, 그리고 한 사회가 두 번째 산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실례를 통해 보여줍니다. 특별히 인생의 네 영역, 즉 직업, 결혼, 철학과 신앙, 그리고 공동체에서의 과정에서 두 번째 산에 올라간 사람들을 조명해 줍니다.



브룩스는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관계주의 relationalism 세계관, 인간 관계와 헌신, 그리고 심장과 영혼의 욕구의 전환을 역설합니다. 첫 번째 산 등정에 힘쓴 우리 이화가족들이 이제는 두 번째 산의 존재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그 산에 오름으로, 단순한 즐거움 pleasure과 행복 happiness을 넘어, 참된 기쁨 joy이 충만한 삶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울 엄마의 지난 이야기

저는 이화여대를 졸업한 심재희의 남편입니다. 사랑스러운 울엄마의 뒷담화(?)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엄마는 난을 그리 좋아합니다. 왜 그리 좋아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찾아가면 언제나 일찍 가라고 등을 떠미는 울 엄마. 난 미국에서 왔는데 가라 하면 어디로 가라고.

정말 미치겠군요! 그런 울엄마의 지난 이야기입니다.

‘빨간 생선 낚파로’

오래간만에 한국에 방문한 손자를 위해 손자가 좋아 한다면 그 생선을 매끼 반찬으로 내어 주시던 엄마. 지금은 그 손자가 싫어하는 생선이 되어버린 빨간 고기 생선.

너무 배가 불러 그만 먹을래요! 하여도 또 내어 오시던 할머니를 보고 내 아들은 화가 난 듯한 말투로 나에게 말하더군요, “이빠 나는 분명히 NO 라고 말했는데……” 한 다리 건너 손자가 이해 하기에는 할머니의 정이 그에겐 너무나 거리가 멀었나 봅니다. 암만 내 아들이지만 울 엄마 욕하면 난 싫습니다!!!!

오래간만에 온 미국 아들 집에 제일 먼저 당신이 먹을 음식을 냉장고에 채워 넣기 위해 Costco Shopping을 먼저 가자고 하시던 엄마. “난 니들에게 절대로 신세 안 진다.” 하며 한국 가실 때 용돈을 내어 주고 가시던 엄마. 그것을 멋있는 신세대 어머니상으로 강하게 믿고 계시던 울 엄마. 아들의 미안함 보다는 본인의 당당함을 더 주장 하시던 엄마. 그런 엄마도 자꾸 그리워집니다.

모든 자식에게 모두 “난 니가 제일 좋다”라는 당연한 거짓 말을 자주 하시는 늙은 엄마. 한번 울 삼형제가 한번 삼자 화상 통화를 같이 해서 어떤 대답을 하실까 확인 하고 싶은 귀여운 엄마.



부모는 항상 돈을 가지고 있어야 자식들이 공경 한다고 믿으셨던 울 엄마. 이미 돈은 아들들에게 다 쥐 버리고 아무 것도 없는 그저 충분치 못한 연금으로 생활 하시는 아버지 옆에서 “돈 필요하면 아빠! 하고 말해” 하고 말하시는 울 엄마.

외출 나간 아버님을 기다리시며 날 버릴까 두려움에 떠신다는 울 엄마. 나의 엄마는 치매 걸린 85세의 할머니 입니다. 지금은 항상 고개 숙이며 아파서 미안하다고 우는 울 엄마.

5년전 처음 들은 그 소식은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으로 보게 만들었고, 그저 어두운 기억으로만 달려갔던 그 첫해에 치매 걸린 엄마가 아닌 옆에서 더 힘든 아버님을 위하여 매일 전화 하자며 60이 되어 버린 큰형과 둘만의 약속을 하게 되었으며, 아직도 그 약속을 매일 지키고 있습니다. 아침 시간엔 나, 저녁 식사 후엔 형. 벌써 5 년째 이네요...

“그래 내일 통화 하자” 난 아버지의 이 말이 정말 좋습니다. 영상 통화라는 조그마한 기계의 혜택은 매일 매일 부모님의 얼굴을 확인케 해주며 조금은 멀어졌던 아들과 딱딱한 우리 세대의 아버지와의 거리를 가깝게 해 주었으니... 그건 어머니의 불편함으로 인해 엄마가 가족에게 준 조그마한 행운이라 믿고 있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난 손자의 Harvard 대학교 합격의 소식을 어제 소식인 것처럼 매일 매일 새롭게 만세를 부르는 엄마. 그래! 그냥 조금 아픈겁니다. 내가 기억하는데... 우리 삼형제가 이리도 많이 기억 하는데... 그냥 옆에만 계세요.

우리 엄마는 치매환자 입니다. 그것도 아주 이쁜 우리 엄마랍니다. 하지만 아직도 난 엄마가 왜 난을 그리 가꾸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심재희 (체육, 90) 남편 김영택



박선영 동문

(가정, 66)

은퇴 후 가장 많이 희망하는 것이 취미 생활이다. 취미는 말 그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는 활동이며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사진 활동은 여가를 잘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취미 생활 중 하나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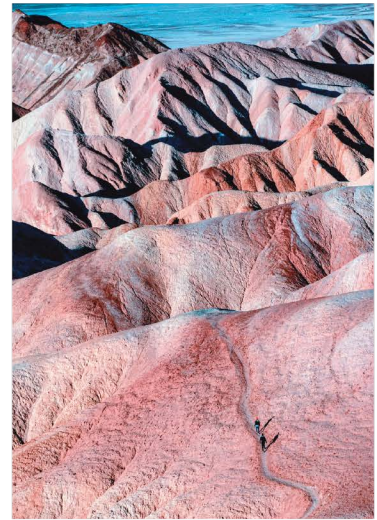
북미주동창회 연례 총회 모임이면 큰 카메라를 어깨에 메고 분주히 사진찍기에 바쁜 사진작가 박선영(가정, 66)동문도 사진 찍기를 취미로 10여년째 즐기고 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제작하신 선교 documentary를 보며 도전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마침 이때 취미로 사진을 찍고 싶어하는 group(10명)이 형성되었고, 그래서 강사를 초빙하여 본격적으로 필요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펍 도움이 되었다고 말해준다. 그후 오지로의 단기 선교도 여러 번 다녀왔고 성지 순례로 터키에도 세 번이나 방문했다며 감회에 젖는다. 그녀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 좋은 사진, 색다른 사진, 창조적인 사진이 나올 수 있다고 사진작가답게 설명해 준다.

박 동문은 사진 찍는 순간에 대해, 피사체(대상이 되는 물체)와 나의 손가락이 소리없이 나누는 대화 - 수화(手話)로 표현한다. 수화의 의미는 셔터를 누르는 순간이라고.

수 화 (手話)

살아 있는 것들과
함께 숨쉬고 싶을 때
바람과 함께
사라져 간 흔적들
그 빛 바랜 향기가
그리워 질 때
카메라를 들고
집을 나선다

따스한 햇살이 흘러내려
빛어지는 세상
들풀이 홀씨를 날리는 시간
어둡고 그늘져
희거나 검기만한 순간들
깜깜해야
비로소 보이는
청보라빛 밤하늘,
그리고 별들
알록달록 꿈꾸는
아이들과 나는
수화를 나눈다



Death Valley National Park, California & Nevada
웅대한 대자연의 극히 작은 일부뿐이나 떠오르는 태양빛을 반사하는 바위 색깔이 아름답다



Kennebunkport, Maine
강 가운데 묶여있는 세계의 보트들과 시간가는 줄 모르고 놀았다



Assateague State Park, Maryland
날씨가 흐리고 어두웠지만 걷혀가는 구름이 만들어내는 반영이 환상적이다



Manhattan, NYC
비 오는 날 빌딩과 인물을 겹쳐보았다



Empty Sky Memorial - New Jersey 9/11 Memorial
NJ 주거지 희생자 749명의 명복을 비는 기념비

총회사진 (2011~2019)





총회사진 (2011~2019)





총회사진 (2011~2019)



총회사진 (2011~2019)



총회사진 (2011~2019)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2021년도 임원 명단							
직명	성명	학과/졸업년도	지역	부서명	성명	학과/졸업년도	지역
이사장	최 경 숙	(영문 66)	Galloway, NJ	교육부	김 영 미 *	(교심 72)	Philadelphia, PA
회장	이 풍 자	(영문 62)	Chicago, IL		김 영 희	(약학 68)	Los Angeles, CA
부회장	김 영 미	(교심 72)	Philadelphia, PA		정 해 주	(약학 67)	San Diego, CA
준비위원장	장 명 주	(의대 77)	Sioux Falls, SD		호 진 희	(가정 68)	Los Angeles, CA
사무총장	임 성 숙	(물리 81)	Los Angeles, CA	예배, 선교부	윤 방 순	(정외 69)	Seattle, WA
총무	성 유 나	(영문 79)	Chicago, IL		배 계 자	(의대 66)	Los Angeles, CA
서기	이 정 화	(수학 81)	Chicago, IL		민 해 성	(약학 76)	Chicago, IL
	민 해 성	(약학 76)	Chicago, IL		안 정 옥 *	(의대 73)	Los Angeles, CA
회계	하 양 신	(의류직물 87)	Chicago, IL	음악, 연예부	장 금 자	(간호 61)	Clearwater, FL
	김 희 영	(피아노 75)	Chicago, IL		김 영 숙	(약학 60)	Troy, MI
감사	윤 중 식	(의대 59)	Chicago, IL		서 동 주	(도예 82)	Chicago, IL
	홍 명 희	(의대 69)	Chicago, IL		최 영 실	(기독교 03)	Los Angeles, CA
자문위원	김 정 희 *	(가정 60)	Chicago, IL	음향, 연예부	성 시 희	(물리 79)	Los Angeles, CA
	한 영 숙	(영문 60)	Los Angeles, CA		김 희 영 *	(피아노 75)	Chicago, IL
	장 명 주	(의대 77)	Sioux Falls, SD		이 명 숙	(도서관 66)	Las Vegas, NV
	김 명 미	(의대 67)	Los Angeles, CA		김 소 영	(불문 63)	San Diego, CA
	김 계 자	(신방 65)	Las Vegas, NV	홍보부	윤 미 라	(기약 60 입)	San Diego, CA
	김 광 자	(불문 66)	Washington, DC		심 재 희	(체육 90)	Chicago, IL
					현 주	(약학 55)	Los Angeles, CA
					권 오 화 *	(가정 61)	Chicago, IL
공천위원	장 명 주 *	(의대 77)	Sioux Falls, SD	홍보부	조 정 기	(의대 66)	Madison, WI
	조 효 은	(교육 71)	San Diego, CA		이 동 우	(영문 57)	Hernando, FL
	민 경 해	(영문 65)	Vancouver, BC		윤 용 임	(의대 64)	Rifton, NY
	권 오 화	(가정 61)	Chicago, IL		이 산 희	(가정 68)	Las Vegas, NV
	박 정 옥	(의대 71)	Los Angeles, CA	회원부	안 미 사	(신방 67)	Temecula, CA
					권 영 애	(의학 64)	Las Vegas, NV
					박 선 영	(가정 66)	Washington, DC
					김 춘 지	(건강교육 67)	Philadelphia, PA
모금위원	한 영 숙 *	(영문 60)	Los Angeles, CA	회원부	문 경 자	(건강교육 67)	Philadelphia, PA
	김 명 미	(의대 67)	Los Angeles, CA		한 진 혜	(약학 74)	Minneapolis, MN
	김 광 자	(불문 66)	Washington, DC		전 광 숙	(사회사업 69)	Calgary, Canada
	구 광 자	(가정 67)	Chicago, IL		김 평 화	(사회학 68)	Portland, OR
	장 명 주	(의대 77)	Sioux Falls, SD	회원부	홍 순 조	(사학 68)	Riverside, CA
	오 구 미	(의대 78)	Chicago, IL		이 안 숙	(의대 71)	Los Angeles, CA
					성 유 나 *	(영문 79)	Chicago, IL
					한 수 강	(영문 65)	Las Vegas, NV
재정운영위원	김 정 희 *	(가정 60)	Chicago, IL	회원부	안 영 설	(의대 64)	Rome, NY
	최 경 숙	(영문 66)	Galloway, NJ		홍 명 희	(의대 69)	Chicago, IL
	박 정 옥	(의대 71)	Los Angeles, CA		김 초 영	(사생 60)	San Francisco, CA
	김 희 영	(피아노 75)	Chicago, IL		민 찬 순	(간호 84)	Chicago, IL
	하 양 신	(의류직물 87)	Chicago, IL	회원부	서 윤 순	(작곡 79)	Minneapolis, MN
					김 정 순	(약학 61)	Las Vegas, NV
					남 금 자	(약학 65)	Los Angeles, CA
					김 안 나	(영문교육 82)	Calgary, Canada
회칙개정위원	최 경 숙 *	(영문 66)	Galloway, NJ	회원부	박 향 자	(가정 66)	Washington, DC
	김 명 미	(의대 67)	Los Angeles, CA		홍 옥 선	(교심 75)	Washington, DC
	이 주 연	(의대 59)	Plano, TX		채 은 화	(의대 71)	Los Angeles, CA
	김 정 희	(가정 60)	Chicago, IL		김 홍 자 *	(섬예58입07졸)	Washington, DC
	조 효 은	(교육 71)	San Diego, CA	미술/사진부	박 선 영	(가정 66)	Washington, DC
	구 광 자	(가정 67)	Chicago, IL		오 구 미	(의대 78)	Chicago, IL
	김 영 희	(약학 68)	Chicago, IL		정 옥 지	(동양 65)	Washington, DC
					이 희 자	(실내장식 65)	Washington, DC
장학부	조 효 은 *	(교육 71)	San Diego, CA	미술/사진부	서 동 주	(도예 82)	Chicago, IL
	유 진 순	(심리 57)	Chicago, IL		조 미 라	(법대 89)	Calgary, Canada
	이 춘 자	(약대 62)	Los Angeles, CA		조 수 경	(가정 64)	Los Angeles, CA
	고 순 정	(의대 77)	Los Angeles, CA	편집부	임 성 숙 *	(물리 81)	Los Angeles, CA
	윤 중 식	(의학 59)	Chicago, IL		유 진 순	(심리 57)	Chicago, IL
	윤영희	(의대 70)	Welsh, LA		최 경 숙	(영문 66)	Galloway, NJ
	장현자	(의대 67)	Los Angeles, CA		김 정 희	(가정 60)	Chicago, IL
	박 정 옥	(의대 71)	Los Angeles, CA	편집부	이 정 순	(화학 57)	Chicago, IL
사회봉사부	강 영 숙 *	(약학 60)	Troy, MI		최 영 실	(기독교 03)	Los Angeles, CA
	한 현 숙	(사복 62)	Minnesota, MN				
	오 유 심	(의대 76)	Chicago, IL				
	김 수 자	(의대 68)	Chicago, IL				

* Chair person

2022년도 북미주동창회 연례모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날짜: 2022년 4월13일부터 20일까지 (7박8일)
- 장소: Seoul, Conrad Hotel

* 여행 일정과 날짜는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예약 및 문의: EWUAANA@gmail.com



서울: 여의도

연례총회 행사 및 만찬



공주: 무령왕릉

연꽃무늬 벽돌로 아치를 쌓은
아치형 벽돌무덤으로 백제 무덤
중 유일하게 주인이 확인된 왕릉이다.
무덤이 통째로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의 약탈을 전혀 당하지
않은 채 온전하게 발굴된 유적이다.



전주: 한옥마을

전주 풍남동 일대에 700여 채의 한옥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통 한옥촌이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전국 유일의 도심 한옥군이다.



담양: 메타 세콰이아 가로수 길

산림청과 생명의 숲 가꾸기
운동본부 등에서 주관한
'2002 아름다운 거리숲' 대상,
사시사철 아름다운 나무 누구에게나
평온과 위안을 주는 가로수길이다.



담양: 죽녹원

담양 죽녹원은 원래부터 대나무
숲인 곳으로 2003년에 이르러
숲에 공원을 조성했고,
31만 제곱미터의 넓은 공간에
울창한 대나무숲과 정자들로
꾸며져 정취를 더 한다.



보성: 녹차밭

마치 녹색의 카펫을 깔아놓은 듯
장관을 이루어 멋진 풍경을 선사
한다. 그림 같은 차밭 사이를 지나
해발 350m 봉우리에 오르면 저
너머 바다까지 펼쳐지는 풍경이
또한 아름답기 그지 없다.



순천: 순천만 갈대밭

담양 죽녹원은 원래부터
대나무숲인 곳으로 2003년에
이르러 숲에 공원을 조성했고,
31만 제곱미터의 넓은 공간에
울창한 대나무숲과 정자들로
꾸며져 정취를 더 한다.



여수: 밤바다

2020년 '한국내 여행 재개 시
첫 희망 방문지' 조사 결과
1위를 차지한 여수는 환호한
야경을 즐기며 신선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여수: 오동도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시작점이며 동백꽃의
자생지이다.
해식애가 발달해 여러
기암절벽들이 존재하고
있다.



문경새재 - 과거 시험보러 가는 길

조선 태종 14년(1414년)
개통된 관도 벼슬길로
과거를 보러 한양길에 오른던
영남 선비들이 장원 급제의
희망을 안고 넘던 길이었다.



통영: 케이블카 한려수도 전망

케이블카를 타고 산과 바다를 즐기며
미륵산 정상에 도착하면 한려해상의
다도해를 내려다 볼 수 있으며
청명한 날에는 대마도가 보인다.



통영: 바닷가 산책로

울창한 숲과 바닷가를 따라
호젓하게 아름다운 해안풍광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산책로이다.



통영: 박경리기념관

기념관 내부에는 박경리 선생의
업적과 작품들을 스토리로 풀어 놓는 듯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고,
소설을 집필하던 서재와
실제 집필했던 원고도 볼 수 있다.

후원금

팬데믹 상황으로 어려운 중에도 동창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흔쾌히 후원해 주신 많은 동문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뜻있는 북미주동창회 사업과 장학금 수여, 모교의 발전을 위한 모금 그리고 각 분야에서의 새로운 활동을 추진하며, 더욱 아름다운 동창회로 발전해 가기를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은 비영리 단체 [501(C)(3)]인 북미주동창회를 통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북미주동창회 후원금

한글이름		이사회비	\$ 100
영문이름		장학기금	\$
전공 및 졸업년도		동창회 사업 및 운영 후원금	\$
Home / Cell Phone		의료원 발전 후원금	\$
E-mail		합 계	\$
Mailing Address			

1. 이사회비는 매년 \$100.00 입니다.
2. 장학기금, 동창회 후원금 및 의료원 후원금은 뜻하시는대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3. Please make a check payable to EWUAANA

Mailing Address:
하양신 회계 (의류직물, 87)
Yangsin Jeon
724 Lacrosse Ave., Wilmette, IL 60091

2020년 후원자 명단

이름	전공	졸업 년도	이사 회비	동창회 행사 및 운영 후원금	장학 기금	의료원	기타 (광고, etc)	TOTAL	이름	전공	졸업 년도	이사 회비	동창회 행사 및 운영 후원금	장학 기금	의료원	기타 (광고, etc)	TOTAL
구 광 자	가정	67		2,000				2,000	이 안 숙	의 학	71	100	400				500
김 명 자	약학	64	100					100	이 정 순	화 학	57	100					100
김 문 자	영문	66	100	900				1,000	이 풍 자	영문	62	100	2,300			1,200	3,600
김 영 미	교심	72	100	2,000				2,100	이 희 련	의 학	63	100					100
김 영 수	가정	66		100				100	임 성 숙	물리	81	100					100
김 영 희	약학	68		5,000	5,000			10,000	장 명 주	의 학	77	100	1,000			500	1,600
김 정 혜	의 학	70	100	1,000				1,100	장 선 용	국문	63	100	300	300	300		1,000
김 정 희	가정	60	100	2,000	5,000			7,100	정 신 용	의 학	69	100					100
김 초 영	사생	60	100					100	조 영 숙	교육	63			100			100
김 홍 자	섬예	58입07졸	100					100	조 영 자	화 학	64	100		100			200
김 희 영	피아노	75	100					100	조 효 은	교육	71	100		1,000			1,100
민 순 기	사회학	70	100		100			200	주 영 숙	영문	60		100				100
박 근 우	사회학	72	100					100	최 경 숙	영문	66	100	1,500	1,000			2,600
박 순 자	국문	67	100					100	최 인	간 호	72		400				400
성 유 나	영문	79	100					100	하 양 신	의류직물	87	100					100
송 영 자	교육	60	100					100	한 영 숙	영문	60		1,000				1,000
안 정 옥	의 학	73					500	500	허 보	의 학	66		5,000				5,000
유 정 히	교육	61	100					100	홍 명 희	의 학	69	100	400	500			1,000
윤 영 희	의 학	70					10,000	10,000	홍 순 희	미 술	71	100					100
윤 중 식	의 학	59	100	500	500			1,100	홍 정 임	영문	60		100				100
이 명 순	기악	70	100	100	100	100		400	Chicago				2,000				2,000
이 문 주	수학	74	100					100	Washington D.C				500				500
이 문 희	약학	72	100					100	의과대학 동창회						1,500		1,500
이 안 나	영문	61	100	100				200	합 계			3300	28,700	13,700	400	13,700	59,800



The Ewha Womans University Alumnae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4170 Alamo St. Simi Valley, CA 93063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CANOGA PARK CA
PERMIT # 488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
EWHHA WOMANS UNIVERSITY MEDICAL CENTER

보구녀관의 정신으로 100년 의료를 책임지겠습니다.

보구녀관의 정신 : '최초에서 최고로'

1885	이화의료원의 시작	시(施)병원
1887	최초의 여성전문병원	보구녀관
1890	최초의 여성	의학교육
1900	최초의 여성 의사	박에스더
1903	최초의 간호교육	간호원 양성학교



해외 동창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이화 동창 및 동창 가족을 위한 진료비, 건강검진 할인 혜택
- 의료원 방문 시 전담 직원 안내 및 의전 서비스
- 숙박 검진 및 의료원 투어 프로그램 이용
- 이상 소견 시 당일 진료 의뢰 및 빠른 결과 화신

상담 및 예약

이대서울병원 | 1522-7000
이대목동병원 | 02-2650-5114

웰니스건강증진센터 | 02-6986-2222~4
이대여성암병원 | 02-2650-5990-3

웰에이징센터 | 02-6986-2290
이화의료원 사회공헌부 | 02-6986-5802~3